

前室入口左右八部衆像解體

前室入口 八部衆左右兩像을 解體調査키 爲하여 九月二十一日에 着手하여 順調로 進行中 向右腰石과 金在田在銘腰石과 接續하는 部分에는 直角으로 鐵製은 정이 插入되어 있었으며 向左腰石에 있어서는 四十五度角으로 腰石과 腰石을 連結하는 鐵製은 정이 插入되어 있다. 이는 大正年度補修時에 施工된 것으로 推定된다.

石工工事

아치마돌上部와 前室左右便의 石築을 完全히 除去後 이마돌上部의 세멘트 層을 整理하던中 中央部에 徑六分되는 鐵筋製은 二個와 左로 三尺一寸 右로 四尺의 間隔을 두어 四個處에 插入된 것을 露出시켰다 (29). 前室木造物 部材 中新增된 八角蓮花文礎石(一個)과 圓形台方形礎石(二個)의 治石作業을 始作하였다(309).

來訪人事

239 國史編纂委員會副修史官 姜萬吉氏

第四卷 第十一號 通卷四十號

安東 造塔洞古墳 發掘調査

秦 弘 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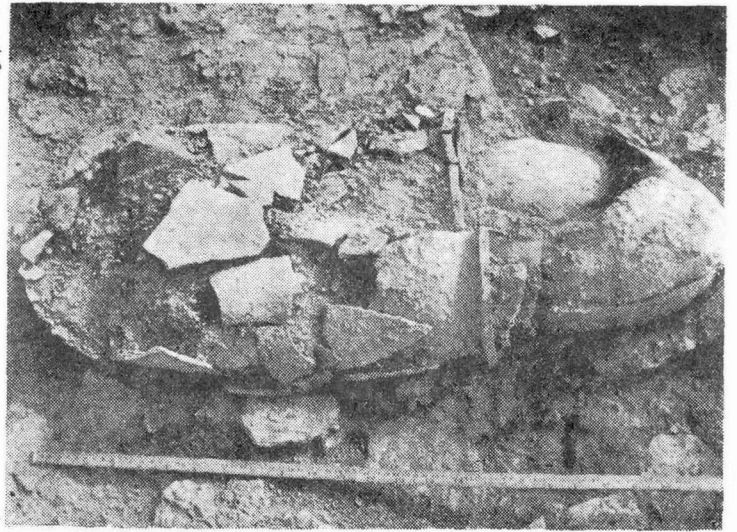
梨花女大의 古蹟調査計劃의 第一次事業으로 安東地區의 古墳發掘調査가 決定되었고 그 對象으로 一直面 造塔洞「빌배봉」에 있는 古墳이 選定되었다.當初는 造塔洞 松里洞에 걸쳐 三基의 古墳을 發掘할 計劃이 었으나 結局에는 一基에 그쳤고 偶然히 露出된 一基을 合하여 二基을 調査하였다.

우리가 目標한 對象墳은 底徑約二〇m 高約五m의 比較的 큰 封土를 보였고 西쪽은 山줄기로 았고 東쪽은 稜線 높았다. 外形으로는 頂上에서 若干 西쪽으로 치우쳐서 파진 자리(里人들은 六·二五매 北傀軍의 砲陣地였다고함)가 있고 東側에 恰似盜掘孔같은 구멍이 있었다.(이孔

은 内部調査時 盜掘孔임이 確實해졌다) 그러나 里人들은 盜掘을 目的으로 파기 시작했으나 封土가 무너져서 結局은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였다 고 말한 바 封土안에 하나의 石室을 豫想했을때 그 角度로 보아 到底히 中心部에 到達하지 못하였으리라라고 推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封土內에는 南北으로 긴 石室이 두 개 있었으며 그 中 東쪽에 있는 石室이 攪亂되었던 것이다.

이 두개의 石室을 便宜上 第一室(東쪽) 第二室(西쪽)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石室의 構造는 두 石室이 같은데 南北으로 긴 長方形의 石室이 中間部에서 若干 매가 불려져있고 東西의 長壁과 北壁은 割石으로 面을 고르면서 空積하였는데 東西壁은 上部가 內彎되게 쌓았고 北壁은 垂直으로 되었다. 모두 面灰한 痕蹟은 없었다. 다만 南壁은 内部의 築石이 고르지 않은 點으로 보아 埋葬後 外部에서 閉塞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다지 堅固한 便이 되지 못했다. 蓋石은 大小不同의 數個의 扁平한 돌을 選擇하여 橫架하였고 그 위에 小石塊를 덮고 封土를 덮고 있었다. 底面은 第一室에서는 中央部에 壁을 築造한 것과 同質同大의 割石으로 一―二尺 程度의 壇을 마련하





있었다. 副葬品은 매우 貧弱한 便으로 封土에서 土器와 鐵刀가 發見되었고 第一室에서 鐵鏃을 비롯한 若干의 鐵製品과 副室에서 土器가 發見되었고 第二室에서 金製鏃, 金銅製鏃을 비롯한 若干의 裝身具가 發見되었을 뿐이다. 다만 異例的인 點은 主室에서는 單一點의 土器도 없었다는 點이었다. 第一室은 盜掘後이고 또 副室에 土器를 副葬하였다 하더라도 第二室에서는 끝내 副室을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盜掘痕蹟이 없는 主室內에서도 一片의 土器도 없었다.

이 두개의 石室이 本封墳의 主要部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第一室과 第二室은 約 一m餘의 高底差가 있다. 즉 第一室이 낮고 第二室이 높은

데 第一室이 먼저 되었고 後에 第一室의 封土의 一部를 헐고 第二室을 만들어 하나의 封土를 만든 듯하다.

第二室 西側 即 封土의 西端에서 뜻하지 않았던 小石室과 甕棺이 出現하였다. 第一室, 第二室의 長軸이 正確히 南北을 가르키고 甕棺 역시 正確한 南北을 가르키고 있는데 小石室은 南端이 約 二十度程度 西側하였고 이 두개의 墳墓를 中心으로 圓形으로 石塊가 周圍에 놓여 있다. 이 區域은 第二室 蓋石面보다 約 二〇cm 높았는데 小石室안에서는 土器破片 若干이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小石室과 甕棺이 并存한 例를 慶北大 學校博物館에서 調査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 적은 墳墓가 第一室이나 第二室과 어떠한 關係가 있는 지는 이제 곧 解明할 수 없으나 興味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目標한 墳墓를 調査하는 途中이 墳墓의 北쪽 「꽃산」에서 土器가 露出되었다는 現地 中學生들의 報告를 듣고 이것도 아울러 調査하였는데 이 墳墓는 封土가 완전히 流失되어서 石室과 土器의 一部가 露出되었던 것이다. 周圍에는 거의 正方形에 가까운 外護石이 있고 그 안에 一個의 長方形石室이 있는데 모두 南을 向하였고 그 中 一室은 完存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石室의 南壁이 流失되었고 그 바람에 副葬品도 流失된 듯 하는 完存한 石室에는 南壁에 불려서 土器와 鐵製馬具가 原狀대로 發見되었다. 이 꽃산에는 無數한 小形墳墓가 있어 封土의 流失로 因하여 石室이나 土器가 露出되는 例가 많은데 꽃산 墳墓를 調査하는 途中 그 밑 二個處에서 土器가 露出되어 採集한 일 이 있었다.

益山出土의 全金小佛坐像

黃 壽 永

石窟庵에서 上京하던 九月十六日 午後의 일이다. 몸이 괴로워 자리에